

우리는 앙굴렘에 가지 않겠다 !

FIBD 2026 이탈 !

몇달동안 우리 만화 전문가, 작가 등 이 분야의 각종 종사자들은 FIBD(앙굴렘 국제 만화 페스티벌) 협회와 9° Art+ 회사 사이의 계약이 약 20년간 지속되어왔음에 그 유해성을 지적해왔다.

여러 언론 기사가 이 회사(9° Art+)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, 그 중 *Humanité* 지는 한 조사를 통해 9° Art+의 한 직원이 제 51회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당시 성폭행을 당한 뒤 그 피해 사실을 알리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일을 밝히기도 하였다.

지난 4월 3일 ADBDA 의 회의에서 FIBD 협회는9° Art+와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,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페스티벌 운영을 맡기겠다는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. 오히려 반대로 9° Art+와 SAS(단순 주식회사)형태로 합병하려는 계획을 더 구체화 하려는 듯 보이며, 만약 그렇게 된다면 9° Art +는 사실상 페스티벌의 제약없는, 무한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.

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이 50년 이상 지속되어오면서 만화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행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만화계 종사자, 작가, 편집자, 번역가, 기자, 비평가 등등 다양한 만화 관계자가 이 페스티벌을 살아 움직이게 한 덕분임을, 또한 이 페스티벌을 향한 독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지 덕분임을 우리는 FIBD 협회에게 강력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페스티벌은 이제 공동체의 것이며, 만화라는 매체의 생존을 위한 공익적인 행사가 되어있다. 그러므로 개인적 이익이나 권위적 선택으로 이 페스티벌을 짓누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.

페스티벌에 생명력과 다양성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, 그동안 각종 특권으로 의혹을 낳은 이 회사에게 페스티벌 관리가 또 다시 십년, 혹은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이런 무분별함, 아집, 유용, 그리고 우리의 요청에 대한 반복되는 무시에 직면하여, 우리 만화 종사자들은 FIBD 협회와 이 페스티벌의 공공, 민간 스폰서들에게, 만약 FIBD 협회가 9° Art+와의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고 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하지 않는다면, 우리는 2026년 페스티벌에 대한 대규모 보이콧을 청할 것임을 밝힌다.

우리 없이 이 행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!